

## 교육관 건립의 의미를 새겨본다

홍세권 방재시험연구원 원장



지난 9월 13일, 교육관이 들어설 구 테니스장 부지에서 우리 회사 임직원들과 시공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조출한 착공식을 가졌다. 경보설비, 소화설비, 제연설비 등 3개의 실습실과 중규모 강의실 1개 그리고 2개의 소규모 강의실을 갖춘 430평의 아담한 2층 건물이 몇 개월 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소규모의 교육관 건립이 무슨 큰 이슈가 되겠는가 할 것이지만 전용 교육시설을 갖추게 된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연구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재 관련교육은 개원 3년 만인 지난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협회의 설립목적인 “화재예방에 관한 연구·계몽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던 차 마침 삼성그룹 직원의 화재예방 교육 요청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시작된 교육인지라 제대로 시설을 확보했을 리 만무하였다. 어두운 조명, 불편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강당이 주 강의실이었고 실습시설도 시험실에 임시로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교육일정이 2박3일이었기 때문에 숙소문제도 고민거리였다. 교육과정의 끝날 적마다 피교육생들의 소원을 받아 보면 강의실과 숙소의 불편 그리고 실습시설의 미흡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곤 했다. 그러나 우리 형편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무실을 개조하여 강의실을 확보하였고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 실습시설을 분산 배치하였으며 직원 숙소를 증축하여 숙박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런 와중에서도 교육업무는 점차 확장되어 나갔다. 첫해에는 교육 연인원이 3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1,000여명을 넘어섰고 수입도 15배나 증가되었다. 1995년에는 노동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명실 공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업무가 늘어 난 것은 저절로 된 것은 물론 아니다. 소방법, 가스관련 법규 등 안전관련 법령들이 지정해 주는 국가지정교육기관과 달리 그야말로 우리는 맨발로 뛰어야 했다. 교육생 유치를 위해서 전국의 중소기업체를 살살이 찾아다니기도 했고 수십만 장의 홍보리플렛을 보내기도 했으며 TM도 시도해 보았던 것이다. 교육업무 전담부서도 홍보부, 교육부, 위험관리센터, 기술지원부 등으로 바뀌었다. 교육 전담인력도 늘 부족하였고 강사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란 옛말처럼 이제 우리는 오랜 숙원이던 전용 교육관의 확보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물론 전용 교육관을 갖춘다 해서 우리 연구원 교육사업의 난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우수한 강사진과 첨단교육설비 확보, 피교육생의 지속적인 증원, 유사기관과의 경쟁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사업이 양적 팽창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 회사 설립이념과 현행 우리나라의 안전관련 교육 시장을 감안해 볼 때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국가재난방지활동의 인프라로서 손실경감을 위한 공익적이고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실용성 있는 방재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어렵사리 교육관을 확보하게 된 일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격언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갖게 된 일이다. 지난 어려움보다 더욱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 다할지라도 오늘의 감격과 기쁨으로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